

/ 2018 강원경제인페스티벌 친선골프대회 /



◇7일 정선 하이원팰리스호텔에서 열린 2018 강원경제인페스티벌 골프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선=신세희기자

경제 도약 희망 담은 힘찬 티샷

제12회 강원경제인페스티벌 이틀째인 7일 강원경제인 친선골프대회가 정선 하이원CC에서 열렸다.

강원일보사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강원랜드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주요 경제기관·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가해 강원경제계 최고의 골퍼를 가리고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열은 안개가 내려앉은 다소 낯선 지역경제의 도약을 희망하며 힘찬 라운딩을 펼쳤다. 도내 경제인들은 부진한 내수 경제를 극복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듯 찬찬히 코스를 밟았다. 특히 상호간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도골프협회 임직원들은 코스를 점검하고 스코어 정리 등 도맡은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힘을 보탰다.

대회 결과 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의 장정익 기쁨레미콘(주) 대표가 68타를 기록하며 통합우승인 메달리스트에 올랐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진 남녀부 경기에서는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의 심상범 삼성생명 GFC사업부 대표가 남자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대한건설협회 도회 소속 정동기 동진건설(주) 대표와 박천성 건흥건설(주) 대표는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강원여성경영인협회 소속 이미경 브라질스크린 임원이 71.2타로 우승했다. 건설협회의 전한자 선진건설(주) 대표가 2위, 강원여성경영인협회의 김영숙(합)정명산업 대표가 3위에 각각 올랐다.

드라이버 샷을 가장 멀리 보낸 롱기스트샷은 252m를 친 이상열 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돌아갔다. 그린홀에 가장 근접하게 공을 올린 니어리스트는 1.2m를 붙인 강원여성경영인협회 채희정 브라질스크린 임원이 수상했다. 최병수 강원일보사 상무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형성된 강원경제인들 간 끈끈한 유대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건설업 체감경기 55개월만에 최저치

CBSI 67.3 ... 전달 대비 14.6P 뚫

올 8월 건설기업들의 경기 체감도가 55개월 만에 최저치로 고꾸라졌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4.6포인트 감소한 67.3에 불과했다. 2014년 1월(64.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이 시기 하락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월과 지난해 1월 다음으로 컸다. CBSI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체감경기지수로,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경기를 비관하는 업체가 많음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최근 보유세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내년도 SOC 예산안 감축을 경기 위축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8월 기준 CBSI 급락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상 8월은 흑서기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로 지수가 5-9포인트가량 떨어지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달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실제 이달 건설경기 전망치는 기준선보다 20.1포인트 낮은 79.9로 조사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하락 폭인 만큼 정부의 고

강도 부동산 규제와 내년도 SOC 예산안의 여파가 건설기업의 부정적인 경기 심리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

주요경제지표	
주가	종합지수 2,281.58P(-6.03P) ↓
코스닥	지수 818.16P(+3.68P) ↑
환율	1달러 1,122.8원(-1.2원) ↓
금리	3년 만기회사채 2.37%P(±0.00P) ■

공증 구법원왕 **박우순** 사무소
 ※ 법률 상담 전문 ※
 · 유언 공증 · 계약서 공증
 · 약속어음 공증 · 대여금 공증

공증인 / 변호사
박우순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 198
 H · P : 010-5371-0460
 TEL : (033) 744-7600
 FAX : (033) 746-8811
 E-mail : oosun0507@naver.com